

을/를

목적격 조사

동작의 대상을 나타냅니다. 형태는 명사에 받침이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만,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지는 뜻만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 있음	을	밥을
받침 없음	를	커피를
다음으로 대체: 은/는	함께 쓰지 않음	김치는 — 김치를는 (×)
도로 대체	함께 쓰지 않음	커피도 — 커피를도 (×)
구어 축약	저를 → 절	나를 → 날, 그것을 → 그걸
반말	자주 생략	밥 먹었어? — 조사 생략

■ 언제 쓰나요

을/를은 직접목적어, 즉 먹고 읽고 사고 보는 대상을 나타냅니다. 밥을 먹어요에서는 밥이 먹는 대상이며, 조사가 그것을 표시합니다.

이동 동사와 함께 쓰여 지나가는 경로나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: 길을 건너요 (길을 건너다), 공원을 걸어요 (공원을 걷다). 또한 타다와 함께 쓰여 버스를 타고처럼 탈것에도 을/를을 붙입니다. 영어는 이런 경우 “전치사”를 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
반대 방향의 함정이 더 중요합니다. 뜻으로는 목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을/를을 쓰지 않는 동사가 있고, 반대로 목적어가 없을 것 같은데 을/를을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은 뜻으로 추론하지 말고 조사를 동사와 함께 묶어 외우는 것입니다.

■ 예문

- 1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봐요.
- 2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.
- 3 내일 친구를 만나요.
- 4 여기에서 버스를 타세요.
- 5 동생이 노래를 잘해요.
- 6 점심을 아직 안 먹었어요.

■ 비교

좋아하다 vs 좋다

둘 다 ‘좋아함’을 나타내지만 쓰는 조사가 다릅니다. 좋아하다는 동사이므로 을/를로 목적어를 취합니다. 좋다는 ‘좋다’라는 뜻의 형용사이므로 명사에 이/가를 붙입니다. 싫어하다 / 싫다, 무서워하다 / 무섭다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.

저는 커피를 좋아해요. / 저는 커피가 좋아요.

타다 vs 내리다

탈 때는 을/를, 내릴 때는 에서를 씁니다. 짝을 이루는 동사지만 조사가 다르므로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버스를 타요. / 버스에서 내려요.

은/는 목적어에 붙이기

을/를 대신 은/는을 쓰면 명사는 그대로 목적어이지만 대조의 의미가 더 해집니다. ‘적어도 그것은’이라는 뜻일 때 쓰고, 단순한 서술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김치를 먹어요. (김치를 먹는다) / 김치는 먹어요. (김치는 먹는다 — 다른 것은 잘 안 먹는다)

■ 주의

✗ 저는 한국어가 좋아해요.

○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.

좋아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. 이/가는 형용사인 좋다와 함께 씁니다. 초급 학습자가 가장 많이 하는 조사 오류이며, 1급 이후에도 오래 남습니다.

✗ 지하철을 내렸어요.

○ 지하철에서 내렸어요.

내리다는 을/를이 아니라 에서를 씁니다. 짝인 타다는 을/를을 쓰는데도 그렇습니다. 뜻으로 짐작하지 말고 조사를 동사와 함께 익히세요.

✗ 커피를 마셔요.

○ 커피를 마셔요.

명사의 마지막 글자로 고릅니다. 커피는 받침이 없으므로 를을 씁니다.